

#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 말 산업 발전 토대 청정제주마장-강경수 농가

제주지원 과장 김용순



강경수 대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듯이 예로부터 제주에는 말의 고장이었다. 제주 중산간지역의 광활한 목초지에 수십두의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제주지역의 말 사육두수는 2000년 7,348두에서 2010년 21,471두로 10년 동안 연평균 약 19%씩 증가하고 있다. 말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말고기 소비 또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말고기의 생산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거래지표 개발을 위해 말 도체 등급판정 현장적용 시험사업을 2010년에 완료하고 말 도체 등급판정기준을 마련하여 2011년 상반기 중에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지난 시험사업 동안 등급판정제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강경수 대표의 말 농장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소재한 알프스목장을 찾았다. 강경수 대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산마 비육농가이며 동시에 말고기 전문식당인 청정제주마장도 운영하고 있다. 강 대표는 지난 18년간 말고기의 고급화와 유통 선진화가 더딘 상태에서도 마육의 고급육생산을 위해 사양기술 개발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습득하여 말고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유통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010년 도체 등급판정 현장적용 시험사업에서 강경수 대표가 출하한 말의 상위등급 출현율이 평균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말고기의 유통 투명성 확보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등급판정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고급육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등급판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주도내에서 특정계절 동안 시행하는 추렴문화(자가 도축을 위한 말 밀도살)의 종식과 외산마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강경수 대표의 얼굴에는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 2010년 말도체 등급판정 현장적용 시험사업 결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계
강경수 농가	두수	2	6	6	15
	출현율(A)	20.0	40.0	40.0	-
전 체	두수	9	41	101	151
	출현율(B)	6.0	27.1	66.9	-
차이(A-B)		14.0	12.9	-26.9	-

## 향후 계획

강경수 대표는 사육규모를 30여두에서 60두로 늘려 규모화하고 말 도체 등급판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주도에서 말 고급육 생산과 선진유통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고급육 생산기반이 확충되면 현재 운영 중인 말고기 전문식당을 확장하여 청정제주에서 생산한 정통 고급식품인 말고기의 경쟁력 향상과 대중화를 위해 힘쓸 것이며 또한 말고기 등급표시 우수 식당으로의 지정도 희망하고 있다. 마육의 고급화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강 대표에게서 말고기가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육류 식품으로 성장해가는 희망이 보인다.